



연합감리교회 마운틴 스카이 지역

마운틴 스카이 연맹

6110 Greenwood Plaza Boulevard
Greenwood Village, CO 80111-4803

303-733-0083
bishop@mtnskyumc.org

Karen P. Oliveto
주교

Nancy Cox
보좌관

2020년 11월 13일

친애하는 마운틴 스카이 연맹의 평신도와 성직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닿기를.

2020년은 많은 이유들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초래한 모든 위험과 피해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적어나가는 지금, 언론에서는 Pfizer에서 90%의 효과가 입증된 백신의 실험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새해가 밝을 때 즈음 사용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죠. 현재, 저희는 코로나 19로 인한 가장 흑독한 날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 전역의 많은 병원들이 수용력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역학자들은 저희에게 코로나 19 사태의 최악은 아직 닥치지 않았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저는 다가오는 11월 22일부로 모든 교회가 예배와 교제를 위한 실내 모임을 중단하고, 적어도 2021년 1월까지 온라인 및 다른 매체를 통한 대체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돈독히 다지며 심화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수 있는 많은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예배드리는 법을 배웠고, 주차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였으며; 교회에서 드라이브인/테이크아웃 저녁 또한 누렸습니다. 저희는 단지 불필요하거나 괜한 “엄청난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저희는 빌딩 문을 닫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건강 상태가 취약한 사람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저희의 사랑이, 저희가 이 새로운 시대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지 계속 알아나가게끔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을 돌보기 위해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내는 데에 도움을 준 것도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코로나 19 환자가 마운틴 스카이 연맹 내에서 급증하면서, 앞으로 두 달은 특히 더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서로에 대한 돈독함을 다지고 전염 경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파를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의 사역의 Task Force(테스크 포스) 에 더욱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들은 매주마다 회의하며, 질병에 대한 업데이트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침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휴가철에 들어가는 저희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디 업데이트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covid19taskforce@mtnskyumc.org 로 이메일 해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예배 안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특히 안식일에 들어서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것은 단기적인 평안함을 가져다줄진 몰라도, 저희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핫스팟이 되게 함으로서 장기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같은 때, 감리교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에 저희는 갈망으로 가득차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들어오신 이야기를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요. 저희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다리며, 저희는 함께 안식의 광야를 여행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를 저희가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때처럼,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두려움에 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계적인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나갔는지에 대해 나중에 세상에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함께 희망의 스토리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최상의 인류가 되면서 말이죠. 이 스토리의 일부분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십시오! 몸조리도 잘 하십시오! 마스크를 항상 꼭 착용하십시오!



Karen Oliveto, 주교 드림.